

나주시, 민선 8기 '제6차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 성료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민선 8기 '제6차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 내 치유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정례회는 도내 22곳 지자체 단체인 부단체장, 관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시·군 간 현안소통과 상호 교류 시간을 가졌다.

나주시립합창단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회의는 협의회장인 박우량 신안군수 인사말, 윤병태 나주시장

환영사에 이어 기념품 전달, 나주시 홍보영상 및 수법사례 발표, 정책건의 사항 의결 및 현안 사항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2천년 역사문화도시, 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 나주에서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함께 6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고 감사하다"며 "22개 시·군이 뿌리가 연결된 나무처럼 단단한 협력 체계를 갖춰 인

남의 강점을 살려 즐거운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회의 안건으로 '국유재산 교환·처분 관리기관 일원화'(여수시), 'BF인증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개선 건의'(고흥군), '시·군 공통 의전 업무 매뉴얼 마련'(강진군) 등이 제안·논의됐다. 제안된 안건은 전체 시·군 만장일치로 중앙부처, 전라남도 등에 건의키로 했다.

나주시는 수법사례로 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통합관제센

터 구축'을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광주·전남 지자체 최초로 구축되는 악취통합관제센터는 공간정보시스템(GIS)에 기반, 365일·24시간 공백없이 실시간 악취 발생 모니터링해 시각화 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오찬 이후에는 기념식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전남도 22개 시·군 간 화합·단결을 상징하는 수목이 나주시 산포면 소재 산림자원연구소에 뿌리를 내렸다. /김동철 기자

담양군, 자주재원 확충 위한 체납액 징수 9월 30일까지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 기간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오는 9월 30일까지를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최근 재무과장 주재로 읍면세무·민원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수입원인 만큼 군에서는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적인 체납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징수하고, 주민세·재산세 등 소액 체납분도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담양군은 정리목표액 12억 7천만 원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이월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읍면별 지방세 체납자 전담 인

력을 지정해 실효성 있는 체납자 실태조사 및 중점 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집중한다.

특히 6월 중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집중 운영하고 야간·주말 영치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납부 능력을 상실한 납세자가 많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도움을 주는 한편 고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장진성 기자

영광군,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확대 군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음식문화 조성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시행되며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식중독 예방·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위생수준을 평가 후 위생등급업소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평가항목은 △기본분야 5항목(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등) △일반분야 33항목(위생분야) △공통분야 6항목(가·감점분야)의 3개 항목이며 평가점수에 따라 3개의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한다.

위생등급제 신청 업소는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 시 ▲ 지정 표지판 제공 ▲ 배달어플, 네이버 플레이스 등에 위생등급 지정업소 표시 및 홍보 ▲ 다양한 위생물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영광군에서는 총 27개소(매우우수 21, 우수 4, 좋음 2)가 지정돼 운영중이며 카카오톡 홍보 채널 및 영광군 홈페이지에 게재해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홍보하고 있다.

강종만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하고 지정업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경률 기자

화순군, 구강건강교실 운영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최근 나드리노인복지관과 화순군 가족센터에서 이용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구강 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구강건강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78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그동안 마스크 속에 가려져 챙기지 못했던 구강을 잘 살피고 함께 관리하자는 의미와 지역주민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구강건강의 중요성 ▲틀니와 임플란트의 정기적 관리 방법 ▲잇몸병 예방을 위한 칫솔질 방법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어르신과 결혼이주여성의 맞춤형 구강 교육으로 진행하고, 구강 위생용품(칫솔, 틀니 세정제)도 배부했다.

아울러, 찾아가는 구강건강 교실은 경로당 한방건강 교실 및 마을주치의 사업과 연계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구강질환 예방 및 바른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61-379-53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문수 기자



장성군은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남도음식진흥원은 우리나라 음식문화를 발굴·보존·연구·개발하는 국가기관이다. /장성군 제공

장성,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 준비 '착착'

장성군은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남도음식진흥원은 우리나라 음식문화를 발굴·보존·연구·개발하는 국가기관이다.

광주·전남 최북단에 위치한 장성군은 맛의 고장으로 유명한 전라남도의 관문이다. 호남고속도로를 품은 데다 KTX까지 경유해 진흥원 설립 최적지로 꼽힌다.

장성군은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 준비의 일환으로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향토음식에 관심 있는 청년, 학생, 농업인 등이 참여한 남도·향토음식 진흥교육 8주 과정을 마무리했다. 첨단장성로컬푸드직매장에서 향토음식, 백양사 천진암에서는 정관스님 사찰음식을 배웠다.

대외적인 교류도 활발하다. 프랑

스 요리 전문학교 르꼬르동블루의 에릭 브리파 본교 학과장 및 관계자들과 유럽연합대사단이 백양사를 찾아가 하면, 지난해 말에는 장성군과 동신대학교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취·창업, 동신대는 미식관광 활성화 분야를 협력한다. 최근 업무협약을 맺은 씨제이(CJ)푸드빌은 장성 농특산물로 신메뉴를 개발할 예정이다. /서성택 기자

한적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2017년 곡성군 자연경관명칭 지정권명상 수상작